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 11. 20. (금) **총 3매** (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촌협력네트워크지원단 - 백은영 단장 (051-797-4503, eybaek@kmi.re.kr) - 이정미 전문연구원 (051-797-4906, jmlee@kmi.re.kr) - 박보임 연구원(051-797-4598, parkboim@kmi.re.kr)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의 미래를 위한 인력 확보 · 청년 정착 해법 모색

- 통영 · 고성 현장 간담회 개최… 외국인력 고용 및 청년어업인 지원 방안 논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11월 20일(금) 경남 통영의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굴수하식수협)과 경남 고성의 (사)경남청년어업인연합회를 방문해 해양수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산 분야 외국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청년어업인의 정착 및 경영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KMI 수산·어촌협력네트워크지원단의 세 번째 현장 소통 활동으로, 경남지역 수산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 실태와 청년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개선과 연구과제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굴수하식수협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정희 원장, 백은영 수산·어촌협력네트워크지원단장 등 KMI 관계자와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 등 수협 관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굴 양식·가공업의 계절별 인력 수요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공유하고, 계절근로제(E-8) 및 고용허가제(E-9)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체류 기간 만료, 비자 연장 및 사업장 변경 등의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숙련 근로자의 장기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경남 고성의 경남청년어업인연합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KMI 관계자와 구자홍 (사)경남청년어업인연합회 회장 등 30명 내외가 참석해, 어선·양식장 임대 등 생산기반 확보, 정책금융, 초기 경영 및 정착 지원 등 청년어업인 지원 정책의 활용 실태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초기 지원 종료 이후까지 고려한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전문교육을 운영하여 경영 역량 강화, 스마트·디지털 기술 도입, 사업 다각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향후 외국인력 수급 및 고용제도 개선, 청년어업인 육성 관련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협·지자체·어업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 수요가 정책연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수산업의 인력 확보와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연구와 정책 제안에 충실히 반영해 수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어업인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 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보임 연구원(051-797-4598) <parkboim@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양수산 정책간담회 사진



지홍태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구자홍 (사)경남청년어업인연합회 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